

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보도 | 배포 시 | 배포 | 2026.6.9.(화) | | |
| 담당부서 |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| 책임자 | 국 장 | 이민규 | (02-3145-792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곽원섭 | (02-3145-7922) |
| | | | 수 석 | 이상훈 | (02-3145-7923) |

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6.6.9. (화) 은행·중소금융부문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, 외은지점의 외화·자금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「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」를 개최하였음
- 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「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*」에 이어, 최근 외환·외화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, 은행권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* [참고] "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", '26.6.8일자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

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6. 6. 9. (화) 15:00 ~ 16:00
- ☑ 장 소 : 금융감독원 회의실(9F)
- ☑ 참석자 : (금 감 원) 은행·중소금융 부원장, 외환감독국장
(시중은행) KB, 신한, 하나, 우리, NH, SC은행 담당 임원
(외은지점)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, HSBC 담당 임원

- 금융감독원 김성욱 부원장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은행권 스스로 외환시장의 거래 규범을 준수하고, 시장 교란 행위 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
-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및 일방향 쏠림 현상 등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, 금번 회의를 통해 마련한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방안에 적극 협조·추진하기로 하였음

2 주요 당부사항

- ① **(외화예금)** 환율 변동성이 높은 現 시장상황에서 은행의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, 유치 등 자제 및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등 필요
- ② **(외환거래)** 과도한 환율 상승 등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 거래 등을 하지 않도록 은행들의 주의를 촉구하고,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며
 - 특히, 역외 NDF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, 과도한 쏠림현상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
- ③ **(외국환포지션 관리)** 주요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포지션 점검주기를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(또는 일간) 단위로 단축하여 한시적 관리 강화
- ④ **(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)**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조치 유예를 기존 '26.6월에서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기로 하였으며, 은행별 자체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필요

3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또는 시장 교란 행위*가 있는지 등을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하여,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

*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(“외국환거래법” §10 ②, §27 ①)

- 추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지속 등에 대비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,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